

보도시점 2026. 8. 14.(금) 석간 < 2026. 8. 14.(금) 14:00 >

부산중기청, 스마트 제조혁신 현장 체험 이어간다

- 100여 개 기업 신청...3회로 나눠 K-스마트 등대공장 현장 견학
- 수요·공급기업 간 제조혁신 사례 공유와 현장 교류 기회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철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8월 14일 부산 기장군 소재 대선주조(주)에서 스마트제조 수요·공급기업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K-스마트 등대공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스마트 제조혁신 우수사례를 기업들이 직접 살펴보고, 인공지능 전환(AI) 등 새로운 제조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견학 참가기업 모집에 100여 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부산중기청은 보다 많은 기업이 제조혁신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가자를 회차별 30명 내외로 나눠 총 3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번이 두 번째 견학이다.

K-스마트 등대공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등대공장’을 벤치마킹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25개사가 K-스마트 등대공장으로 선정됐으며, 부산에서는 대선주조와 오토닉스 2개사가 선정됐다.

참가기업들은 이날 대선주조의 K-스마트 등대공장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IoT와 빅데이터, AI, 로봇, 5G 등 다양한 기술이 실제 생산·설비·품질관리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조현장을 직접 견학했다.

또한, 스마트제조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해 제조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이번 견학이 수요기업에는 새로운 제조혁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급기업에는 현장의 필요를 파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중기청도 기업의 제조혁신 수요가 필요한 기술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연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책임자	과 장	김길상 (051-601-5140)
		담당자	사무관	임종복 (051-601-5157)